

日本齒科醫療產業界訪問記

— (주)Shofu · (주)Morida · Kuraray Group —

III. 希望의 未來를 向한 MORITA編

大韓齒科醫師協會誌

主幹 李承婁

I.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Morita가 대내외적으로 자부심을 갖기까지는 70여년의 발자취는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Morita의 창업 70년사를 훑어보면 『창업당시 매사가 순조로웠다고 생각되지만은 新事業展開를 위한 창시자의 영단과 불굴의 정신, 그리고 이에 따른 중횡무진의 활약을 유감없이 발휘한 오-쓰까(大塚精一)翁을 위시하여 소수정예의 집단에 의한 불철주야의 노력은 그야말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 시대에 배양된 진취의 기상과 일치협력의 정신은 Morita행동규범의 지주로서 영원토록 이어져 갈 것이다. Morita의 활동은 그 규모의 크기로 해서도 일개사기업(私企業)을 떠나 극히 높은 활동성을 지닌 공공성의 업체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류의 복지에 기여해 나간다는 사명감 아래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을 도입, 시대에 부응한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보다 나은 보다 편리한 診療機器 시스템, 최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념뿐이었다.』 Morita의 희망과 미래의 구상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치과의료는 일반의료와는 별개의 길을 걸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Morita의 입장으로는 일원화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의 조짐으로서 치과질환의 종합된 진단 등 인접의학과의 경계를 메우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금후는 유년기 → 성장기 → 성인기 → 노년기의 치과의료가 행해지리라 믿어진다. 하나의 처치를 함에 있어서도 그 환자의 다음의 치료시기를 충분히 예측하여야

될 것이다. 앞으로 노년기의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이에 대응한 총의치나 치주질환영역은 갈수록 고도로 세련된 진료행위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벌써 일부에서는 제 5 세대의 컴퓨터가 개발도상에 있으며 이 컴퓨터의 출현이 推論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것으로 점차 나타나고 있는 터이다. 인간의 모-든부분이 컴퓨터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인간의 영역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도 서서히 컴퓨터를 고려한 계획을 세울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판단은 인간에 맡겨두는 것이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장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든가 인간성을 개발하는 것이 또한 Morita의 보다 중요한 연구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은 Morita 70년사 발간에 즈음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서 이와같은 Morita의 기업이념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자못 교과서적이라고 생각된다.



〈개발도상에 있는 제5세대의 컴퓨터〉

II. 오직 치과의료의 봉사자로서의 Morita

21세기를 향하여 일본은 물론, 세계의 여러나라들도, 생명의 존엄, 건강에 대한 희구 등, 복지지향은 날로 높아만 갈 것이다.

그와같은 가운데서, 치과의료도 현재 임상가들이 항상 부딪치고 있는 우식이나 치주질환의 치료등 각 분야에서 유효한 치료방법이나 기재가 뒤를이어 개발, 연구되어 나갈것이다. 예를 들면 치질(齒質)에 가까운 고분자계 레진의 충전물이나 합금, 세라믹 등, 상상을 넘어서진 진료방법과 의료기기 및 재료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질병치료는 대증요법에 쫓기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 국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과진료로 질병에 대한 처치의 발전 뿐만 아니라, 병들지 않은 사람이나 치료가 끝난 사람의 건강을 항상 유지케 한다는 것에 치중하는 즉, 사후 관리 또는 예방의학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추세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정확한 진단, 구강위생의 지도, 질병예방을 중심으로 한 웨미리닥터로서 치과의사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어릴때부터의 치과교정치료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치료해야 함과 같이 우리들 Morita는 이들 양면의 치과의료의 변화에 적응하여 적극적으로 기계나 재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치과의료에 종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III. 개원을 앞둔 치과의사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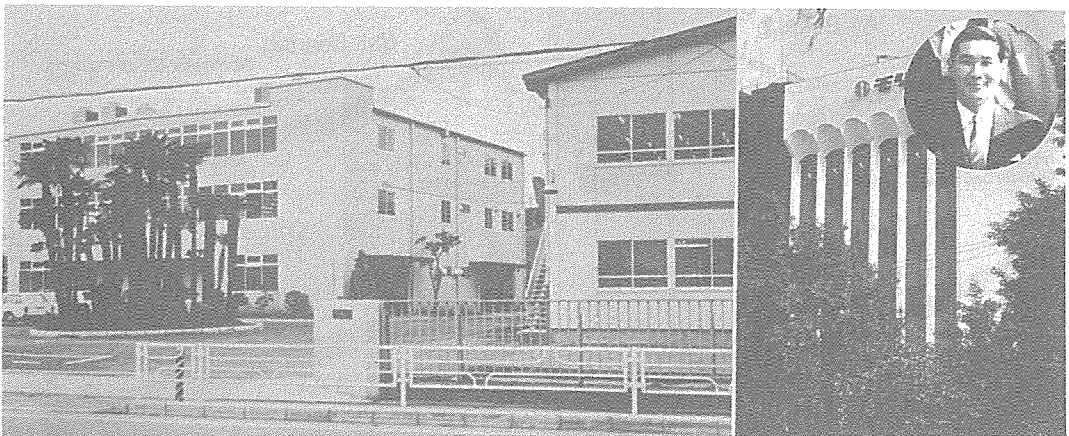
Morita는 개원을 앞둔 치과의사에게는 입지적조건 의 선정이 매우중요한 아프터가 되겠지만은 컴퓨터를 구사해서, 희망하는 기기 및 재료의 조사, 개원 예정지의 지역적 여건, 경제성의 동향, 주야의 인구비율, 연령구성, 치과의원수등의 정보를 제공 하기도 한다.

그리고 희망하는 진료소의 규모, 스텝·인원·설비 등 경영에 필요한 데-타를 컴퓨터에 의하여 정확하게 나타낸것을 알리는 일도 Morita의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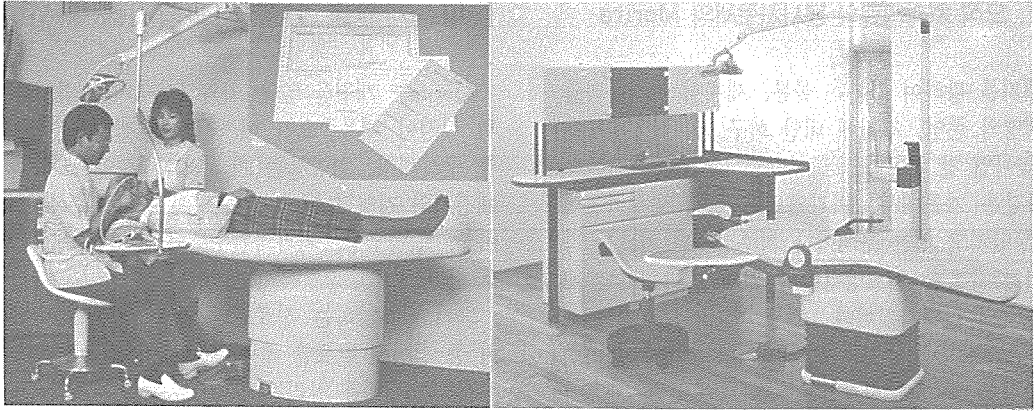
IV. 연구개발의 표상, Morita제품의 機器

사람의 몸은, 중력에 대하여 현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력선에 대하여 가장 안정된 자세는 0°=수평위이며, 몸을 둔부, 양어깨, 양팔, 둔부, 양하지로 지탱한다. 다음으로 안정하기에는 둔부와 양발의 바닥으로 몸을 지탱하는 椅子위의 자세이다. 치과의료를 받는 환자는 수동적인 입장이므로 가장 안정된 자세=수평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조건을 갖춘 생리적인 자세와 자연으로 일정한 움직임을 가능케하는 스페-스 라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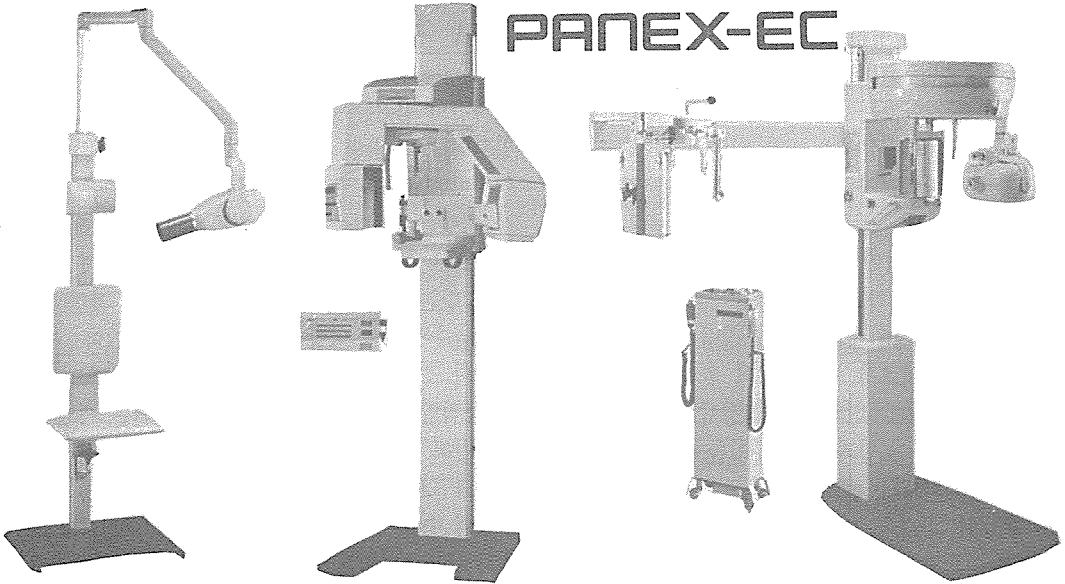
치과진료는 진료내용에 응한 기재 준비 → 진료 → 기재의 수세 → 소독·멸균 → 수납·보관 그리고 다음의 준비와, 일관된 흐름이 있다. Morita제품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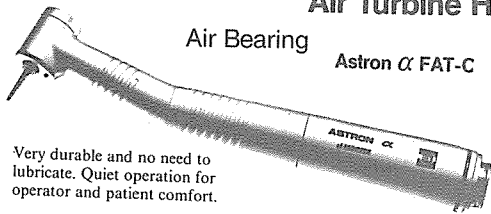
〈Morita의 東京本社 圓內는 森田福男 社長〉



PANEX-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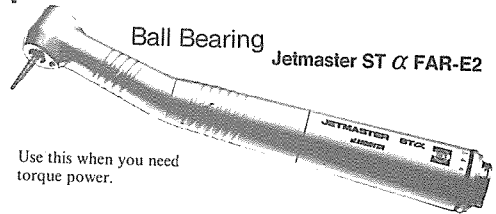
Air Turbine Handpiece



Air Bearing

Astron α FA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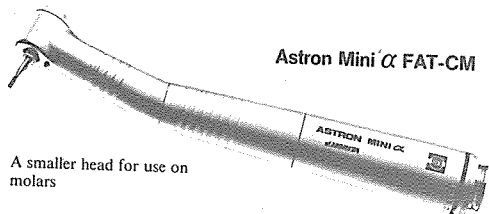
Very durable and no need to lubricate. Quiet operation for operator and patient comfort.



Ball Bea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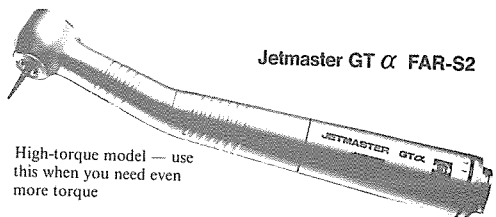
Jetmaster ST α FAR-E2

Use this when you need torque power.



Astron Mini α FAT-CM

A smaller head for use on molars



Jetmaster GT α FAR-S2

High-torque model — use this when you need even more torque

〈Morita의 우수한 주요 제품군(群)〉

들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진료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한 완성도의 수준높은 제품들이다.

Morita는 치과용 X선장치의 개발분야에서도 선구적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X선장치로서의 성능면의 우수함 뿐만아니라,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도록 최대한으로 배려되어 있으며 에어터빈 핸드피스등의 생산에 있어서도 세계의 까다롭고 엄격한 안전규격에 합격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기술은 Morita의 총합된 제품군(群)이기도 하다.

V. 방문기를 마치고

필자는 일본 치과의료업체 3社(Kuraray 그룹, (주) Shofu, (주)Morita)를 走馬看山식으로 돌아보고 외람되게 나름테로의 느낌을 두서없이 기술해 보았다.

특히 필자가 돌아본 3사는 진취적이고 일본뿐만아니라 국제적인 메-커로서 신장이로에 있음을 현저하게 느껴졌다.

첫째 Kuraray G.은 치과의료산업계에 진출한지 10여년에 불과하지만 80년에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대선배회사와 가이 비견할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콤포지트레진, 크레아 필 본드 씨스템, 파나비아 등을 개발,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중위권으로 부상했으며 둘째 (주)Shofu는 도예(陶藝)를 기업(家業)으로 하는 가운데 치과재료인 도치(陶齒)를 전량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부단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일본에서도 고급도치(高級陶齒) 개발에 성공하여 국제적인 대 메이커로 성장했으며 오늘이 있기까지는 인력난 해소, 고급품질을 균일하게 증산하기위해 공장시설을 로봇트체용(무인 씨스템)자동화로 바꾸었다. 이런 시스템 시설도 자체설계와 제작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Shofu의 공청자본은 36억 3천여만엔, 연간 매출액 1백 9억엔(91년 3월분기 실적) 종업원 약 400명 그중 연구개발부에만 수준높은 두뇌 70여명이 집결되어 있다. 전체품은 일본 국내 수요 80%, 국외 수출 20%정도이며 대외시장 확장을 위해 북미·중남미, 구주·중근동권, 동남아·오세니아권, 동북아시아권등 4대축을 형성, 판매거점으로 하고 미국, 독일,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영국의 「에



드벤스트·헬스·케어」사(치과재료연구소)를 매수, 구주인의 기호에 맞는 치과재료 연구개발의 제 2의 거점으로 하고 있는 등 의욕에 차있다.

셋째(주) Morita는 우리나라에는 (주)신흥을 통해 너무도 잘알려진 Unit Chair생산 메이커의 대명사, Morita의 Unit Chair는 사람의 몸은 중력에 대한 가장 안정된 자세는 수평위이어야 하며 환자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가장 안정된 자세, 즉 수평위는 일정한 움직임이 가능케 하기위해 Spaceline Unit를 개발했으며 그밖에 Signo, Actus등 Unit Chair계는 세계적인 제품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신흥은 Morita와 기술을 제휴하여 Unit Chair 국내생산에 착수, LeoII를 시작으로 신제품 개발을 계속, 지금은 Signo를 생산공급하고 있어 치료기기의 불모지를 개척하여 국내 치과의료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X-선 장치의 개발에 있어서도 성능면뿐만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경감에 있어서도 최대한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Air Turbine Handpiece 생산과정에서도 조합된 인력과 완벽한 정밀시공과정은 Morita제품의 우수성과 고도성장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치과의료산업계도 획일적으로 중지를 집약해 연구개발에 재투자, 정부에서의 지원등으로 연구소의 활성화로 국내생산품의 꾸준한 연구개발로 품질개선과 국산품에용으로 최소한 이웃 일본 치과의료산업계에 버금가는 생산업체가 탄생했으면 하는 욕망과 아쉬움 뿐이다.